

14 | 저유소 기계보수 정비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홍막의 악성 중피종

성별	남	나이	53세	직종	기계보수 정비업	업무관련성	높음
----	---	----	-----	----	----------	-------	----

1 | 개 요

근로자 박○○은 1980년 2월 1일 ○○오일(당시 ○○석유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계보수 정비업종 및 저유소 건설업무를 담당하였다. 2008년 5월 2일 홍막의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았다.

2 | 작업내용 및 환경

○○석유주식회사(現○○오일)는 조유계통의 제품 생산 공장으로 1997년 ○○공장을 철거하고, 저유소를 건설하여 현재 ○○오일(주)○○저유소로 생산된 제품을 저장하는 물류시설로 운영 중에 있다. 근로자 박○○은 1980년 2월 ○○석유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계기보수 및 교정작업을 하였다. 파이프 관이나 계기에 감겨있는 석면테이프를 떼었다가 교정작업이 끝나면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하였으며 ○○오일(주)○○저유소가 건설된 이후에도 저유소의 계기보수 및 교정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시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장 채취 시료 분석결과 벌크시료는 백석면이 주성분으로 소량의 접착제 등 일부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채취한 3개의 시료 모두 현미경 시야상의 조밀성에 따른 석면의 함유량은 90%이상이다.

3 | 의학적 소견

근로자 박○○은 30년 동안 매일 1갑을 흡연하였으며, 술은 16년 전부터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특별한 가족력이나 과거질환력은 없으며, 악성종괴종의 위험인자라고 생각되는 방사선치료의 과거력 또한 없다. 해군 통신병으로 근무하였고, 주로 육지에서 근무하였으며, 군함을 타지는 않았다고 한다. 과거 거주기록 상 석면이 노출될 수 있는 광산이나 석면공장의 소재지와 비슷한 지역에 거주한 기록은 없었다. 2008년 4월경 기침과 오른쪽 가슴 불편감이 있어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였고, 흉부방사선소견상 이상소견이 있어서 ○○병원 방문하였다. 2008년 4월 22일 흉막삼출 소견이 있어서 흉막 조직검사와 흉부방사선단층촬영, PET검사를 실시하였다. CT소견상 흉막종괴가 보이고, PET상에서 흉막과 대장에 대사량증가 소견 보여 2008년 5월 2일 오른쪽부위에 흉강경을 통한 흉막생검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오른쪽 흉막에 생긴 악성 종괴종이라고 진단받았다. 현재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이다.

4 | 결 론

근로자 박○○은

- ① 1980년 2월부터 28년 2개월 동안 ○○석유주식회사와 ○○오일(주)○○저유소에서 공장내 배관의 계기 유지 및 보수작업을 하면서 석면팩킹, 석면테이프를 사용하여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 ② 사업장에서 현재 사용 중인 석면테이프를 분석 결과 백석면 함유량이 90% 이상이었고,
- ③ 1997년 (구)○○공장의 철거작업 인근에서 저유소시설의 건설업무를 담당하여 철거작업 할 때 관리, 감독을 하여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 ④ 과거력과 가족력상 관련질환이 없으며 거주력과 군대경력 상 석면 노출 가능성이 적고,
- ⑤ 석면 최초 노출 시기로부터 악성종괴종 이환까지의 기간이 최소잠복기의 3배가 되므로,

근로자 박○○의 흉막의 악성 종괴종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